

농민주보

이 줄은 줄은
농민을 위한
농민신문
농민신문

「공위」업무 성공 가망 대조선 원조안 제출

리-취-장관 위정론에서 답화



(위정론) 당시 방문이로써 그들의 민족 자존감을 높여 주었다. 그들은 남조선 미군정을 도울지 않고 그들의 정관(政官)인 리-취-장관을 위정론(威正論)을 발표하여 미군정의 부패를 공격하고 조선을 독립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① 미소공위의 업무... 조선을 통일하는 데 소양(素養)이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리-취-장관은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건국을 위해 힘을 다 하겠다

지난 7월 7일은 건국 49주년이다. 이 날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다. 우리는 이 날을 맞아 건국을 위해 힘을 다 하겠다.

사막 필재서

남조선과도 정부의 회담이 있다. 이 회담은 남조선과도 정부의 회담이다. 이 회담은 남조선과도 정부의 회담이다.

대일 배상 사절단 조선측 대표 임명

공정배상위원회는 대일 배상 사절단을 임명했다. 이 사절단은 조선측 대표를 임명했다.

남조선과의 민간무역 개시

남조선과의 민간무역이 개시되었다. 이는 남북 교류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조선과의 민간무역 개시

남조선과의 민간무역이 개시되었다. 이는 남북 교류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명령 제4호

정명령 제4호는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명령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마카오로부터 필수물자 임박

마카오로부터 필수물자 임박. 이는 남조선의 경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희발유 등 각종 광유

희발유 등 각종 광유. 이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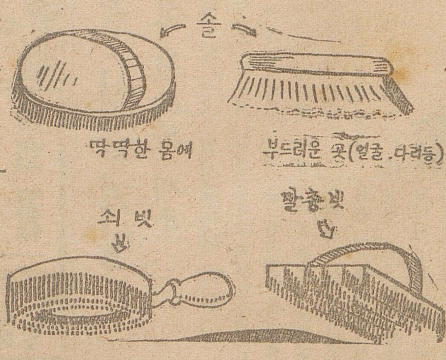
1기작감자재배법

식량증산겸종자 확보

여러분이 할 아시 하겠다. 1기작 감자재배법을 요하는 것은 종자확산의 약하여 심할하면 다... ①심기전의 처리... ②심기(11월~12월)... ③제초와 배토... ④밭아(發芽)...

가축의 건강과 청결관계

사람이 청결한것을 좋아하는것과같이 동자우우는 유산이 있을 때 청결한것이 청결한것이다. 단말이 그러므로 가축의 사료... ①배변장소... ②배변장소... ③배변장소...



마력한 몸여 부드러운 빗(말과 다령용) 쇠빗 발총빗

다음의는 물에서 건져서 종자로 심을수 있는... ④밭아(發芽)...



이 동물은 멧돼지입니다. 멧돼지는 멧돼지입니다. 멧돼지는 멧돼지입니다.

가축이 피부부에 결핵을 일으키는 것은... ①감안한 방법... ②감안한 방법...

가축의 코일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 ①감안한 방법... ②감안한 방법...

가축의 건강과 청결관계... ①배변장소... ②배변장소... ③배변장소...

가축의 건강과 청결관계... ①배변장소... ②배변장소... ③배변장소...

가축의 건강과 청결관계... ①배변장소... ②배변장소... ③배변장소...

가축의 건강과 청결관계... ①배변장소... ②배변장소... ③배변장소...

가축의 건강과 청결관계... ①배변장소... ②배변장소... ③배변장소...

가축의 건강과 청결관계... ①배변장소... ②배변장소... ③배변장소...

가축의 건강과 청결관계... ①배변장소... ②배변장소... ③배변장소...

농약사용법

조성농약의 사용법

농약의 사용법... ①배변장소... ②배변장소... ③배변장소...

농약의 사용법... ①배변장소... ②배변장소... ③배변장소...



★장편동화★
피omye이 나라 32
 글·그림 이주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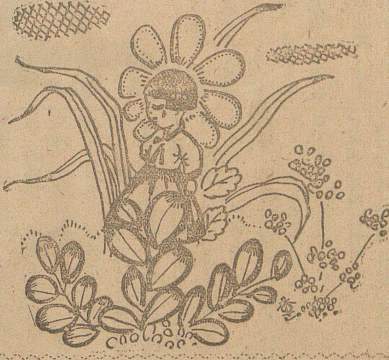
(八) 피omye이 나라의 슬픔 (4)
 왜 나라와 청나라는 드디어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청나라는 왜나라의 세력이 한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함이었었고 왜나라는 한나라에서 청나라의 세력을 몰리치고 크세력을 한나라에 펼치기 위함이었습니까 땅의 넓이로 보든지 나라백성의 수효로 보든지 청나라는 왜나라의 열곱도 넘었기 때문에 모

든 나라는 청나라가 꼭 싸움에 이길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였읍니다 청나라 자신도 고가짓 집나타인들 왜나라은 힘사리 쳐 부릴줄 믿고알고 있었읍니다 그와 반대로 왜나라는 피나라보다 엄청나게 넓고 크고 힘이 쎈 청나라와의 싸움이 기때문에 처음부터 싸움을 단단히먹고 덤비었읍니다 싸움은 점점동안계속 되었읍니다 말할것도 없이 싸움터는 한나라이었지요왜나라 군사가 한나라로 쳐 들어왔고 한나라에 머물고 있던 청나라 군사는한나라 땅에 쳐들어온 왜나라 군사를 맞아 싸우게 되었으니가요 싸움이 시작 되고 보니까 왜나라의 군사는 청나라나와 다른 나라들이 생각 하였던것 보다 세웠읍니다 그리하여서 청나라는 뒤로々々 물러기 시작하여 드디어는 원 한나라에서 물러 나가기 되고 마침내 싸움은 왜나라의 승리로 돌아 갔읍니다 싸움에 진 청나라는 한나라에서 물러 나갔읍니다
 왜나라는 곧 한나라를 크 세력 밑에 접어 넣을수 있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한나라 백성들 중에는 왜나라의 세력이 들어 오는것을 원치 않았을뿐 아니라 왜나라가 그전부터 청나라에게 하여 오는 말이 있는 까닭에 곧 크 세력을 한나라 안에 펼치는것을 실행할수는 없었

읍니다 왜나라가 한 말은
 <피omye의제나라가 나 각각 다른 나라의 힘을 빌지않고 크 힘으로 살아 나갈수 있어야 피omye이 제나라는 언제 까지나 평화할수 있는것이니까 청나라는 속히 한나라에서 물러 가라>
 이렇게 크입으로 말하여 왔으니

까 속으로는 곧 한나라를 크 나라로 만들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지만까지 말하여 온것이 거짓말이 되고 말뿐 아니라 청나라는 물론이요 한나라까지 왜나라는 거짓말하는 나라로 여겨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왜나라는 한나라를 크 나라로 만드는 일은 다음으로 미루고우선 한나라에게 권함을 보이기 위하여 지방까지는 청나라의 세력에 눌리어 한나라의 모-든 일을 맘대로 못하든것을 청나라를 한나라에서 몰아 내인 다음으로는 한나라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않고 살아 갈수있는 원전 독립국으로 만들어 주었읍니다 말할것도 없이 왜나라의 이러한 것은 진실로 한나라를 위하여 된것은 아닙니다 (계속)

• 동요 • 노랑꽃 하나
 성독아래 홀로핀 노랑꽃 하나
 아무도 못보는 노랑꽃 하나
 엄마 아빠 어디서 잃어 버리고
 외로이 피고 지나 노랑꽃 하나
 박은종 지음



가정 치료법
 ⑦

② 폐렴 (肺炎) 기다루
 폐렴 기다루는 폐결핵의 초기로서 이때에 적당한 치료를 하면은 빨리 고칠수가 있는 것이니까 기침이나 가래(痰)나기 시작할때 다음에 열기란 치료를 가하면서 일상생활에 주의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 병은 결과로 보아 등한시 할수없는 병이니까 곧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 도라지
 도라지는 기침을 멈추게 하는 모약입니다 도라지(罌利)와 감초(甘草)를 각각 삼분매식을 一홉五작의 물에 끓여 달여 물이 반쯤(七八작) 될때 까지 더워서 그 약물을 一일분으로 하여 두번에 나누어 복용 합니다.
 ★ 뱀장어 구운것
 뱀장어를 까맣게 되도록 구어 가루를 만들어 五그람씩 一일 三회 기

때세에 복용하고 안정한 몸갖음을 합니다.
 ★ 닭의 달피(生血)
 닭의 달피는 영양제만 필만 아니라 폐의 열을 제거 하는데 효력이 있습니다. 一일분으로 닭 두마리의 달피를 냉장고 (혹은 찬물속)에 넣어서 一주일간 기다려서 그 회에 한 폐갈식 끼니 사이에 서너번씩 용유합니다.
 ③ 폐결핵 (근병)
 폐결핵에 걸리면 죽는다고 해서 이것을 고칠수 없는 병이라고 불치의 병이라고 합니다. 허나 이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폐결핵이란 그렇게 두려운 병은 아닙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적당한 가로를 하면 완치됩니다. 더구나 도회적 사람보다 농촌의 여러분에게 전 수위의 환경이 이 병을 고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속에서 살수 있으니까요.
 ★ 소금

각혈을 하였을 때에는 안정되 하고 맑고 정한 식음을 좀 짜게 물에 타서 한공기쯤 마시던 곧 멎습니다.
 한번 해서 효과가 없을 때에는 二·三회 되풀이 하십시오.
 각혈을 하게되면 일 말죽으로 크게 두리워 하고 걱정을 하는데 각혈이란 그렇게 두리워 할것이 아닙니다. 각혈은 반듯이 곧 멎습니다. 고연스리 병자 자신이 각혈을 필요 이상으로 걱정을 하여 도저히 출혈이 끊이지 않았다 는 예도 있습니다.
 ★ 약
 죽을 까맣게 구어서 가루를 만듭니다 그 가루를 작은 술갈로 하얗게 식전에 복용 합니다.
 ★ 솔잎 술
 솔잎은 일반적으로 강정제로서 특 효과가 있습니다만 솔잎술은 더욱 효과가 있을뿐 아니라 마시기도 좋습니다.
 솔잎술을 얼마 동안 장복하면 위장의 활동이 좋아지고 더구나 폐

병에는 반듯이 떠르는 설사가 차차로 끊어 소화력이 늙니다. 술을 만드는 법은 적송(赤松)의 새잎을 따서 잘 씻은후에 솔잎말고 불은 점멸을 잘 빼어없애고 가위로 三등분쯤 되게 썬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피들이 병 하나에 맑고 깨끗한 물 四홉五작에 흰 설량만근을 타 넣고는 잘 섞어엿고 약 十분의八쯤 넣습니다. 너무 술을 많이 넣으면 술맛이 발효(醱酵)하는 동안에 가스가 생기어 병이 깨지기 쉽습니다. 술을 넣고 나면 마개를 단단히 합니다. 그러나 그냥 놔두면 발효가쓰르 인하여 병이 깨지기 쉬우니까 하루에 한 번씩 마개를 빼어 병속의 가스를 꼭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햇빛이 잘 드는 양치쪽 마루위에 놔두는데 여름이면 一주일 겨울이면 二주일쯤 일광에 쬐고 밤에는 따뜻한 방안에 들여다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술맛은 변색하면서 술위로 떠 오르게되던 一 되짚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온 변형집으로 걸러서 다른병에 옮겨 담습니다. 이렇게 하여 만든 술잎술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므로 한겨번에 많이 하여 쉬우고 먹을수 있는데 하루에 여섯번 한번에 작은 술잔으로 한잔이나 두잔씩 복용 합니다. (계속)

